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통과 촉구 건의안 (박은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417
----------	-------

발의년월일 : 2024. 3. 19.

발 의 자 : 박은경 의원 등 9명

1. 주 문

-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 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이 평균보다 낮아 학습능력, 대인관계 등에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지만 관련 정책이 없는 실정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련한 법률이 조속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하며 건의함.

2. 제안이유

- 경계선 지능인은 통계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14%에 해당하는 약 728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전 생애 발달과정에 걸쳐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 이들은 장애인으로 판정받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 조례안을 제정·시행 하고 있으나 국회에서는 관련 법률이 계류 중인 상황으로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한 법률 통과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경계선 지능인의 보편적 인권 보장과 자아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통과와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함.

3. 참고사항

- 송부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각 정당 대표(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통과 촉구 건의안

세상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는 이분법으로 나뉘지지 않으며, 장애인 중심 사회에서 사회적·경제적으로 소외됨과 동시에 장애인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이른바 경계선 지능인이 있다.

경계선 지능인이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가 71에서 84까지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으로 지적 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이 평균보다 낮아 상황판단과 대처 능력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경계선 지능인은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14%에 해당하는 약 728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제도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러한 경계선 지능인은 학습 및 교우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사회생활의 부적응으로 인해 자립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경계선 지능인의 생애주기별 특성과 복지 욕구를 기반으로 한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적 지원 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최근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기관과 단체에서 이들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전국 74개의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시행함으로써 곳곳에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2023년 4월부터 발의된 경계선 지능인 지원과 관련한 의안 총 5건 중 「느린 학습자(경계선 지능인) 교육지원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 1건이 가결된 것을 제외하고, 총 4건의 법률안이 모두 계류 중이다.

경계선 지능인의 보편적 인권 보장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국회에서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신속한 심사와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듯이 모든 인간은 존엄한 삶, 가치 있는 삶,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고, 경계선 지능인도 예외는 아니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경계선 지능인 지원 관련 법률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건의하고자 한다.

하나. 정부는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 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하라!

하나. 국회는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의결하라!

2024. 3. 21.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